

MLB 경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꼭 마주치는 게 ET라는 글자예요. “일정이 ET로 되어있네?” 하고 넘기기엔, 이거 한번만 잘못 환산해도 시청 타이밍이 통째로 밀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대충 보고 들어갔다가, 투구 시작 전에 채널을 끊고 딴 걸 하던 적이 있어요. 그날 경기 놓친 게 아니라, 제가 경기의 템포를 놓친 느낌이었달까요.

오늘은 MLB 일정 표기에서 시작해서, 야구중계 사이트를 고를 때 뭘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키워드는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예요. 결국 목적은 하나죠. “내 시간에 맞춰, 제대로 보고 싶다.”

왜 하필 ET부터 보게 되냐면

MLB는 일정 페이지에서 시간을 표준 표기인 ET(미국 동부시간)으로 보여줘요. 한국에서 MLB를 보다 보면 ET를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봐야 하니까, 처음부터 ET부터 이해하는 게 제일 덜 헷갈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미국 동부 시차는 보통 13시간”이라는 점이에요. 보통 13시간 차라고 되어 있으니, 날짜나 시즌에 따라 딱 떨어지게 항상 고정일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미국 쪽 일광절약시간 같은 변수 때문에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환산을 할 때 ‘보통’이라는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뒹요. 급하게 계산하면 실수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 방식은 간단해요. ET로 된 시작 시간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보통 13시간 차”를 기준으로 대략 한국 시간을 잡아요. 그리고 결국 가장 안전한 건, 시청 전에 일정 페이지에서 해당 경기 시간이 아직도 동일한지, 혹시 연기나 변경이 반영됐는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공식 일정은 업데이트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한국 시간 환산, 감으로 하면 사고가 난다

MLB 일정에서 시간을 ET로 주니까, 한국 이용자는 KST로 환산해 봐야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ET에서 한국은 13시간 더하면 되겠지” 같은 식으로 한 번에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야구는 날씨 변수도 있고, 일정 변경이 생기면 그 한 번의 착각이 바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미 한국 시간으로 딱 맞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아니라서 중간에 들어감” 같은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환산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시작 시간을 ET 기준으로 딱 읽는 거예요. MLB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작 시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시간으로 바뀐 결과를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고 싶은 시간이 “밤 9시대”라면 그 시간대와 맞는지 정도만 체크해도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계산 한 번”보다 “확인 한 번 더”가 훨씬 싸게 먹힙니다. 야구중계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니깐요.

MLB 일정이 업데이트되는 구조를 알고 보면 편해진다

MLB는 일정 페이지와 순위 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중요해요. 야구는 경기 시작 직전까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 변수가 반영된 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야구중계사이트를 쓸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광고나 재생 버튼만 빨리 보여주고, 실제 경기 시작 시간이나 방송 상태를 뒤늦게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공식 일정 페이지를 기준으로 삼고, 중계 선택은 그 다음”이라는 순서를 지키게 됐어요.

MLB의 시즌도 구조가 명확해요. 162경기 체제고, 순위 페이지에서 디비전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포스트시즌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이걸 중계를 볼 때 단순 정보

라기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경기가 “중요한 국면인지” 체감하는 데 도움이 돼요. 타이밍 잡기에도 은근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는데, 그럴수록 일정 확인이 더 중요해져요.

MLB만 보면 되는 게 아니다, KBO랑 비교하면 더 빨리 감 잡힘

사실 한국에서 야구 보다가 MLB까지 넘어오면, KBO와 함께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KBO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KBO는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로 편성되고, 2026년 개막이 3월 28일(토)로 안내되어 있어요. 단일리그 제고,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를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좋은 점이 있어요. KBO 공식 일정 페이지는 날짜별 경기, 시간, TV/RADIO, 그리고 장소 같은 정보까지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맞는지, 내 채널 환경에서 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훈련이 됩니다.

MLB로 넘어오면 정보 형태가 또 달라져요. MLB는 시간 표기가 ET로 나오고, 중계 관련 확인이 “공식 일정에서 Where to watch” 형태로 안내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둘 다 “공식 일정에서 시간과 중계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KBO에서 해보면 MLB에서도 같은 습관이 바로 이어져요.

제가 한 번씩 스케줄을 [mlb중계](#) 영키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KBO에서는 공식 일정 보고 움직이는데, MLB로 넘어오면 갑자기 감으로 찾거나, 중계사이트에서 떠 있는 시간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환산, 업데이트, 취소나 연기 반영까지 한 번에 놓치기 쉬워집니다.

야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저는 이렇게 최소 검증만 해요

“어디서 보지?”가 고민의 핵심이죠. 근데 야구중계사이트는 전부 똑같아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경기 시간과 중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최소한의 기준점을 줘요. 공식 일정 페이지는 경기별 시간과 중계 정보를 제공하고, KBO 일정에는 TV·RADIO·LOCATION 항목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MLB 일정에서는 Where to watch가 안내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 “공식 일정과의 정합성”만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굳이 복잡하게 따지기보다, 시간과 채널이 맞는지에 초점을 뒹요. 제 기준은 아래처럼 아주 짧게요.

- 공식 일정에서 해당 경기 시작 시간이 무엇으로 표기되는지(MLB는 ET) 먼저 확인하기
- 내가 보려는 시간대에 한국 시간으로도 맞는지 재확인하기(보통 13시간 차)
- 중계 채널이나 “Where to watch” 안내와 내가 쓰려는 환경이 맞는지 보기
- 경기 취소나 연기 같은 반영 여부를 일정에서 한 번 더 체크하기

이 네 가지면, 적어도 “시간 틀려서 헤매는 상황”은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생기는 실수들, 그리고 피하는 법

MLB 일정 표기 ET를 처음 접할 때 실수는 보통 패턴이 있어요. 저는 그 패턴을 몇 번 겪고 나서, 아예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ET를 한국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를 잊는” 경우예요. 특히 경기 시작 시간이 밤이 아니면 더 쉽게 잊습니다. 낮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밤 경기로 넘어오면, 사람 머리가 “어, 이건 대충 이 시간대겠지” 하고 자동으로 판단하거든요. 자동 판단이 제일 위험합니다. ET라면 무조건 기준부터 다시 보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실수는 “환산은 했는데, 업데이트를 안 본” 경우예요. 공식 일정은 업데이트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경기 당일에도 다시 보면 더 정확해요. 중계사이트에서 재생이 안 되면 그때야 확인하는데, 그러면 이미 체감상 늦습니다. 저는 최소한 경기 시작 한두 시간 전, 그리고 시작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에요. 야구는 경기 리듬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 이런 식의 여유가 체감 만족도를 올립니다.

세 번째 실수는 KBO 방식으로 MLB를 보려는 거예요.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 TV/RADIO 정보가 같이 나오고, “그 채널이면 되네” 하고 바로 연결하기가 쉬운 편이라고 느껴요. 반면 MLB는 ET 표기와 Where to watch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클릭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만 알고 있어도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요.

포스트시즌 시즌에서는 시간 확인이 더 민감해진다

MLB 포스트시즌 구조도 알고 보면 일정 확인의 중요도가 더 커져요. 162경기를 치른 뒤 순위 페이지에서 디비전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구조가 안내돼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포스트시즌으로 갈수록 “그날 경기 놓치면 끝”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정규시즌은 놓쳐도 다음 경기라는 완충이 있는데, 포스트시즌은 그런 완충이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저는 중계사이트를 바꾸는 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합니다.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내가 믿을 만한 방식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움직여요.

정규시즌 때는 실험해도 시간 복구가 가능한데, 포스트시즌은 그렇지 않으니깐요. 이 감각은 숫자보다 경험에서 생깁니다. 한 번 놓치면 그 다음부터 더 철저해져요.

야구중계, 결국 “시간-채널-업데이트”가 전부다

정리하자면 MLB 일정 표기(ET)부터 이해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 시간에 맞춰 보려면 결국 ET를 제대로 읽고, 보려는 시간대가 내 쪽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계사이트를 고를 때는 공식 일정에서 제공하는 시간과 중계 안내가 기준점이 됩니다.



요즘은 야구중계가 눈에 띄게 많아서 선택지가 넓어졌죠. 그런데 선택지가 넓을수록 오히려 기본기가 흔들립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편했어요. “공식 일정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른다.” 이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마지막으로, 바로 써먹는 습관 하나만

MLB를 볼 때, 저는 첫 경기 시작 전에 딱 한 번만 체크합니다. 그게 뭔지 길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ET로 되어 있는 시작 시간을 먼저 보고, 한국 시간은 보통 13시간 차 기준으로 대략 맞는지 확인하고, 경기 시작 전에 공식 일정이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이 루틴만 잡히면 mlb중계든 야구중계든, “오늘 내 시간에 맞나?” 같은 불안이 크게 줄어요. 야구는 결국 그 불안을 걷어내고, 공이 움직이는 순간에 집중하는 게 이기니까요.